

2010 오리데이 기념 행사, 각지에서 개최



실시와 함께 입점 브랜드인 화인 코리아 치키더키의 새로 출시한 오리볶음탕 제품을 선보여 높은 매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전 매장 역시 화인코리아의 녹차황토오리와 통오리바베큐, 목우촌(모란식품)

2010년 오리데이 (5·2 DAY)를 맞아 각지에서 시식,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루어졌다.

올해에는 규제역 확산 등으로 중앙단위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오리고기 소비저변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유통분야에서 개별적인 오리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롯데마트 월드점과 서울역점 등에서는 야외에 시식 부스를 운영하며 자사 입점 브랜드인 다향오리의 다양한 제품을 전시·시식하고 협회에서 발간한 요리책지를 배포하는 한편, 매장 내 오리데이 특집 코너를 만들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전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이마트 역시 전 매장에서 오리데이 기념 할인판매를

의 훈제오리 슬라이스, 어섯초 오리바베큐 등 인기제품을 할인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는 오리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1일, 게임과 퀴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오리요리 책자와 훈제오리 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 행사가 펼쳐져 많은 관심을 모았다.

롯데마트 축산팀 김환웅 계장은 “지난해부터 오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인기가 매우 뜨겁다.”고 말하면서, “오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충남 공주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고맛나루장터’에서는 (주)엘로우덕의 셋노랑 오리 제품 할인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AI 특별방역 T/F 회의

지난 5월 14일과 28일, 농림수산물식품부 회의실에서 농식품부 관계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 협회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특별방역 T/F 회의가 개최되었다.

농식품부는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농가·관련 업체 등 방역 지도·점검을 통한 AI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7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AI 특별방역

T/F 회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가금농가 및 운반차량, 관련 업체에 대한 소독시설 등 방역교육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AI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시·도 자체점검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AI 매몰지를 점검 및 AI 가상훈련을 추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10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엄



가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위생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0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엄이 5월 7일(금) 개최되었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으로는 현대 육용종계의 유전능력 향상 및 사양관리, 육용종계의 영양권장 수준 및 실제 적용, 살모넬라 부재 계란 및 닭고기 생산을 위한 위생관리, 국내 종계에서 난계대 전염병 감염 실태 보고 등 4연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당면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의 위생적인 가금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위생 수준 만족을 위한 의견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회원 및 생산자, 학계 관계자들이 자리하였다.

- ▶ 일시: 2010년 5월 7일(금) 10:00~15:30
- ▶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

건국대학교 행사시 소비촉진 시식회 및 설문 조사 실시



우리 협회는 5월 12일(수) 건국대학교에서 오리고기 소비의 취약 계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졌다.

건국대학교 춘계 축제인 대동제를 맞이하여 동물생명 과학대학 동물생산환경학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오리고기 훈제 제품뿐만 아니라 오리 소시지, 오리 떡갈비 제품 등을 선보이며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 생산·유통과정, 오리고기 효능에 관한 판넬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젊은층에 오리고기의 우수성 및 오리산업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및 필요성, 오리고기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한편, 우리 협회는 지난해에도 오리고기 시식 행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 일시: 2010년 5월 12일(수) 12:00~15:00
- ▶ 장소: 건국대학교 박물관 앞 삼각지

협회 사무실 확장 이전 안내



우리 협회는 오리 산업과 협회의 새로운 발전 및 도약을 위하여 협회 사무실을 현 제2

축산회관 5층에서 6층으로 확장하여 이전하였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정부의 품목발전 대표조직 지정과 더불어 직원 증원,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7일(금) 축산회관 입주 각 협회장 및 직원을 초청하여 사무실 확장 이전 입주행사 및 오리고기 시식회를 진행하였다.

변경된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하다.

- ▶ 주소 : 138-8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6층
- ▶ 전화 : 02-585-5286~7
- ▶ 팩스 : 02-597-5249

이창호 회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이사 선임



우리 협회 이창호 회장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의 제 2회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임기 6월 22일 개시)되어 앞으로 2년 동안 HACCP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국내 오리산업 관련 HACCP 지정 등에도 앞장설 것이다. 한편, 이창호 회장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010년도 제 1차 대표자회의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축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국내 오리산업 현장 숙원과제 제출

지난 5월 3일(월)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제12기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속 단체별 현안 및 숙원사업 자료집 제작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는 단체별 현안 사항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문제상황 발생시 공동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이에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 오리산업 현장 숙원과제 4가지를 발표하였다.

최근 소비 증가로 불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중국산 등 저급 수입 오리고기인 인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의무화, 오리산업 근간인 사육업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오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내 배합사료 및

깎짚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업계 종사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비 절감 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친환경이라는 전 세계적 업계 동향에 발맞추기 위한 오리의 친환경 축산장려 등이 그것이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숙원과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산업 발전과 업계 종사자들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본 숙원사업 자료집은 농단협을 통해 제작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되었다. 한편, 본 오리산업 숙원과제는 지난 3월, 농협의 「농협·농촌 숙원과제」 자료집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